

무등현대미술관 개관 기념展 3일부터 11월4일 까지

예향의 아침 '굿 모닝, 광주'

무등산 자락 세번째 미술관...광주 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 조망

무등산 자락에 또 하나의 문화공간이 문을 연다. 2일 개관하는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기존 의 재미술관, 우제길 미술관에 이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입구에 자리잡은 세번째 사설미술관이다.



정송규 작 '관개'

작가 정송규씨가 사재를 털어 세운 무등현대미술관은 700㎡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기획전시실(1층)과 상설전시실(2층)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미술 경향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특별전·기획전, 대관전 등 연 10여 차례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방대학과 연계해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방침이다.

3일부터 11월4일 까지 열리는 개관기념전은 '굿 모닝, 광주!'를 주제로 광주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함으로써 지역 미술의 미래를 점검하는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왕성하게 활동중인 원로, 중견 화가들로 광주 현대미술의 전개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술인들이다.

참여작가는 김영숙, 김재형, 김종일, 백순실, 송용, 오승우, 우제길, 정송규, 최영훈, 최재창, 황영성씨 등이다. 무등현대미술관은 또 소장 중인 허백련, 임진순 선생의

작품을 비롯 국내 대표화가들의 작품 200여점을 선별해 상설전시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정송규 관장은 "무등현대미술관은 난해하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지역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667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CNS금관5중주단 화요일에 술무대

2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호흡해 온 CNS금관5중주단(사진)이 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화요일에 술무대에 선다.



악단과 목포시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용일·함인호·추선호·송형진·김세훈·하건씨가 함께 꾸려가고 있는 모임이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트럼본, 호른, 튜바, 트럼펫, 드럼으로 구성된 CNS 금관 5중주단은 'Classic in Sw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 바하의 '평균율', 에릭 사티의 '집노래',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프로세션 오브 노블레스' 등을 연주한다.

또 '블루스의 대가'로 불리는 헨디의 작품과 다양한 영화음악을 작곡한 미국의 작곡가 마이클 케이번 곡들도 연주한다. 지난 2004년 창단된 CNS금관5중주단은 광주시립교향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논술 공개 강좌

매일 둘째주·넷째주 토요일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영화, 그림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매개 삼아 논술에 접근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트, 에셔, 사갈의 그림을 텍스트로 한 미디어 논술에 대해 강의하며 27일에는 민혜숙(호신대 겸임교수)씨가 존 스티븐슨의 '동물농장'을 소재로 '이데올로기와 인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11월 10일에는 김영삼(전남대 국문과 박사과정)씨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소재로 '근대화과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문의 062-650-0330~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청자미디어 센터(광주)는 지난달 8일부터 센터 다목적 홀에서 매일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미디어 논술 공개 강좌'를 진행중이다.

오는 13일에는 김은혁(지혜의 숲 연구원)씨가 '마그리



미리 보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0월5~11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

디자인의 태동과 진화

20세기 디자인 발자취·남도 디자인 자산 100선

본전시와 함께 치러지는 특별전은 공식 테마전 2개를 비롯해 초대전 등 모두 3개 테마로 진행된다.

본전시와 함께 치러지는 특별전은 공식 테마전 2개를 비롯해 초대전 등 모두 3개 테마로 진행된다.

▲명예의 전당-20세기 디자인 발자취(큐레이터 최익희 홍익대 교수) = 20세기의 각 시대별 디자인을 대표하는 디자인 제품 132점이 소개된다.

초창기 디자인을 개척한 제너럴 일렉트릭, 샘슨사의 선풍기 모델 시리즈, 생활용품 등 장식적인 아름다움에서 기능 중심으로 변화하는 1910년대 디자인 제품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전화기와 라디오 등 시대별 대표 제품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사용자 중심의 기술과 디자인이 이뤄진 1950~60년대 디자인을 선도했던 파나소닉사의 초창기 TV 제품 등이 소개된다. 이밖에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기업의 디자인 개발이 이뤄진 1970년 이후 디자인 제품들이 전시된다.

▲남도의 디자인자산 100선(큐레이터 강인호 목포과학대 교수) = 예향으로서 디자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광주의 유·무형 디자인 자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 이 전시에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실시한 '남도의 '관'을 찾아주세요'라는 공모전 입상작을 비롯 앙드레 김의 조명디자인, 광주에서 활동중인 영상 설치 작가 이이남, 황인욱씨 등 국내 작가 256명이 출품한 100여점의 디자인 작품이 선보인다.

▲특별 기념 초대전=빛의 시인 잉고 마우러 전 '디자이너의 빛', '모바일폰 디자인 역사'전 등 모두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잉고 마우러 전은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인 잉고 마우러의 작품 40여점이 선보인다. 대표작 '벌브(Bulb)' '야야호(YaYaHo)' '루첼리노 테이블(Lucellino-table)' 등이 포함돼 있다.

'디자이너의 빛'은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인 'LIGHT'를 주제로 한 젊은 작가들의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된다. '모바일폰 디자인 역사'전은 현재 디자인계를 주도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시로, 과거 10년 동안 제작된 대표적인 휴대전화 모델들을 통해 디자인 트렌드, 기술, 소재 등의 변화상을 보여 준다.

잉고 마우러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필코사 작 '홀리데이 프레디터 TV'



잉고 마우러 작 '루첼리노 테이블'

LED조명디자인 국제공모전 1위 '레조넛'

2위엔 니클라스 로프버그 '나선'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달 30일 영국 출신 디자이너들이 공동 출품한 '레조넛(Resonet)'을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LED조명디자인 국제공모전' 1위 작품으로 선정, 발표했다.

또 니클라스 로프버그(핀란드)의 '나선(Spiral)'을 2등, 라파엘 모르간(브라질)의 '빛 방울(The Light Drop)'과, 타마스 스즈칼(헝가리)의 '2007호모루멘스(Homo Lumens MmVII)'를 공

동 3위 작품으로 선정했다. 영국 윌리엄 헤일리양 첸 등 3명이 공동 출품한 '레조넛'은 LED그물망이 포착한 주변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환경 본래의 파동을 시각화한 프로젝트이다.

4위는 한국 9명(개인·단체)을 포함해 전세계 75개 개인과 단체의 출품작이 뽑혔다. 당선작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 전시 공간인 '진화의 빛' 코너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국 디자이너들의 공동 작 '레조넛(Resonet)'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냈어요

Happy Time 영화안내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메가박스</p> <p>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p> <p>1관 사랑(154) 최고급관</p> <p>2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3관 마이피더(154)/본 얼티메이텀(124)</p> <p>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5관 본 얼티메이텀(124)</p> <p>6관 즐거운 인생(전체)</p> <p>7관 상사부일체(154)</p> <p>8관 상사부일체(154)/인베이션(154)</p> <p>9관 두 얼굴의 여친(154)/사랑(154)</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p> <p>★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과정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 시네마</p> <p>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두 얼굴의 여친(154)/디워 (한국사학/124)</p> <p>2관 인베이션(154)</p> <p>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4관 본 얼티메이텀(124)/마이피더(154)</p> <p>5관 사랑(154)/마이피더(154)</p> <p>6관 즐거운 인생(전체)/화려한후가(124)</p> <p>7관 상사부일체(154)</p> <p>www.entercinema.co.kr</p> <p>★ 넓고 편안한 욕내-욕외 주차장 300대 ★</p> <p>★ 낮고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광동시영영시네마 ●예매:www.joyabo.com/1588-7941</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p> <p>1관 즐거운 인생(전체)</p> <p>2관 디워 (한국사학/124)/마이피더(154)</p> <p>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5관 사랑(154)/상사부일체(154)</p> <p>6관 사랑(154)</p> <p>7관 본 얼티메이텀(124)</p> <p>8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9관 인베이션(154)</p> <p>10관 상사부일체(154)</p> <p>●호남 최대 주차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p> <p>1588-7941</p> <p>성원전면 뷔페 (11시~2시) -1천~2천 -1천</p> <p>콜롬버스점(107관) 저렴한 상영중</p>	<p>색깔있는 영화시영 ●www.cinusa.co.kr/1544-0070</p> <p>씨너스 전대</p> <p>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p> <p>1관 본 얼티메이텀(124)</p> <p>2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3관 즐거운 인생(전체)</p> <p>4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5관 인베이션(154)</p> <p>6관 상사부일체(154)</p> <p>7관 사랑(154)</p> <p>●매일심야 상영합니다●</p> <p>●무료주차 3시간</p> <p>●이동통신사 할인혜택</p> <p>●세너스축사 사무(모닝4-캐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www.mo12.co.kr/1588-9101</p> <p>무등극장</p> <p>총장로 1가 ☎232-9106</p> <p>1관 본 얼티메이텀(124)</p> <p>2관 인베이션(154)</p> <p>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4관 상사부일체(154)</p> <p>5관 사랑(154)</p> <p>6관 사랑(154)</p> <p>7관 마이 피더(154)</p> <p>8관 즐거운 인생(전체)</p> <p>9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p> <p>●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새로운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p> <p>제 일 시네마</p> <p>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p> <p>1관 사랑(154)</p> <p>2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p> <p>3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4관 상사부일체(154)</p> <p>5관 인베이션(154)</p> <p>6관 마이 피더(154)/즐거운 인생(전체)</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p> <p>●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